10.15686/fkl.2018..44.47

범죄, 지리, 젠더 : 김내성의 『마인』과 근대적 탐정소설의 세 가지 키워드

유인혁 *

차례

1. 범죄, 지리, 젠더 : 탐정소설의 삼각형
2. 범죄, 지리 : 도외(都外)의 마인
3. 지리, 젠더 : 이동하는 남성, 정지된 여성
4. 젠더, 범죄 : 남성 탐정, 여성 범죄자?
5. 범죄, 지리, 젠더 : 탈주의 서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범죄', '지리', '젠더'의 키워드를 통해, 김내성의 『마인』을 분석했다. 지금까지 이 세 키워드는 『마인』을 비롯하여 식민지시기 탐정소설을 분석하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작동했다. '범죄'를 통해서는 탐정 유불란이 서구의 '명탐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성과 추리력을 무기 삼아 범죄를 해결하는지 여부가 주목받았다. '지리'를 통해서는 식민지시기 경성이 근대적 탐정소설의 공간에 적합한 대도시인가를 판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젠더'는 유불란과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를 조명했다. 즉 수사보다 연애에 주력하여, '탐정'의 본분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폈다. 이상의 세 키워드는 궁극적으로 한국 탐정소설이 서구 탐정소설의 형식에 부합하며, 이성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 연구는 범죄, 지리, 젠더의 문제를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넘어, 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럼으로써 『마인』의 텍스트가 '서구식 근대적 탐정소설'의 형태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근대성의 모델이 단일하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형태가 병존할 수 있다는 공간적 관점을 제기하였다.

한편 『마인』의 서사는 범죄, 지리, 젠더의 전제들을 부정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마인』은 미스터리한 범죄가 탐정의 추리력에 의해 해결된다는 공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충동에 매료되어 있다. 또한 『마인』은 도심과 도외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서사적 공간을 근대문명의 세계로부터 상대화한다. 그리고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체현한 존재로 여성을 성격화하며, 그것을 미적으로 연출한다. 정리하자면 김내성은 『마인』을 통해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내성은 근대적 합리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초극하고자 하는 열망을 재현했다.

핵심어 : 김내성, 『마인』, 탐정소설, 범죄, 지리, 젠더, 공간적 전회

1. 범죄, 지리, 젠더 : 탐정소설의 삼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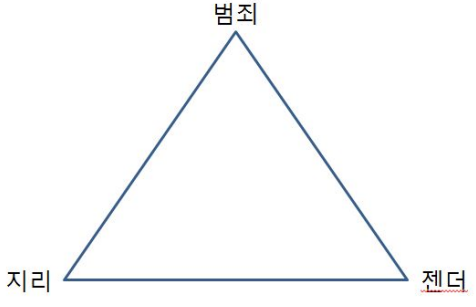


그림 1

하나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하자. 범죄, 지리, 젠더라고 하는 제목이 야기할 수 있는 오해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단어들은, 이상의 주제들이 차례대로 탐구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텍스트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따라, 처음의 것이 나중에 가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조는 시간(역사)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진보한다. 하지만 이 글은 범죄, 지리, 젠더를 세 개의 점으로 삼아 공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범죄는 지리, 젠더와 연결될 것이며 지리는 범죄, 젠더에 접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텍스트는 시작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항들의 구조, 즉 '도형'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텍스트를 다양한 요인들이 병존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 해석의 공간적 전회(spatial turn)를 시도하는 것이다.[1)]

지금까지 범죄, 지리, 젠더의 키워드는 『마인』을 비롯하여 한국 탐정소설을 분석하는 중심적 개념으로 작동했다. 여기서 '범죄'의 의미는 가장 자명하다. 탐정소설은 범죄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이성의 힘으로 무장한 탐정이 있으며 결국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는 탐정소설의 이 전형적인 공식"[2)]은 "과학적 지식과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성중심주의 내지 계몽주의"[3)]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시

1) 공간적 전회는 에드워드 소자가 제안한 개념으로, 시간이라는 범주에 특권을 부여하는 근대성을 대신하여, 공간, 혹은 '시간성의 공간화'를 내세운다. 문학연구에서 공간적 전회는 지리적 관점의 도입, 그리고 텍스트를 공간적 관점에 따라 해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역, 시각과 언어, 1997, 1~352쪽, 이뢰크 되링·트리스탄 틸만 편, 『공간적 전회』, 이기숙 역, 심산, 2015, 1~630쪽.

2) Julian Symons, *Bloody Murder*, Mysterious Press, 1993, pp.2~3 ; 조성면, 「탐정소설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제1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347쪽에서 재인용.

3) 한민주, 「근대 과학수사와 탐정소설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제4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62쪽.

기 조선에 탐정소설을 소개했던 사람들부터 “탐정소설의 자질을 과학, 이성으로 규정하고 탐정소설 창작의 필요성을 근대성의 획득과 결부지어 논의”[4]했다. 이때 『마인』의 유불란이 셜록 홈즈와 같이 ‘추리력’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진정한 탐정인가를 판별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한편 『마인』과 탐정소설들은 공간·지리적 측면에서도 활발히 분석되었다. 이는 대체로 대도시 및 근대적 도시문화의 등장과 밀접히 연관되었다. 에드거 앨런 포의 파리, 아서 코난 도일의 런던, 레이몬드 챈들러의 L.A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탐정소설의 무대는 주로 대도시였다. 이는 대도시가 다양한 인간 군상과 충격적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범죄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탐정의 지적인 수고를 증대시키고, 복잡한 도시적 환경이 탐정의 노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탐정에게 대도시는 끊임없이 범죄자가 나타나는 곳이자, 추격과 탐색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들의 지적 능력과 행동력을 분주히 투여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5] 따라서 경성이 “탐정소설의 무대로 적합할 정도의 근대도시”[6]인가 하는 문제는 『마인』의 근대적 기반을 가늠하는 중요한 좌표였다.

마지막으로 탐정소설을 구성하는 젠더 관계 역시 민감하게 인식되었다. 『마인』의 유불란은 범죄의 수사만큼이나 연애에 진력하는 탐정으로 읽혀졌다. 이는 연애소설과 탐정소설의 성격을 뒤섞은 입체적인 플롯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7], 합리적 이성의 대리인으로서의 탐정과, 그에 기반을 둔 ‘근대 탐정소설’의 문법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8] 이

4) 김은하, 「모더니티를 탐사하는 근대적 이성의 로망스」, 『국어문학』 제47호, 국어문학회, 2009, 238쪽.
5) Glenn W. Most, “Urban Blues: Detective Fiction and the Metropolitan Sublime”, *The Yale Review* Volume 94, 2006, pp.64~66.
6) 신성환, 「김내성 번안 추리소설에 나타난 공간의식 연구」, 『비평문학』 제44집, 한국비평문학회, 2012, 287쪽.
7)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대중서사연구』 3권 1호, 대중서사학회, 1997, 181쪽.
8) “연애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내다보는 시력을 빼앗는 것이다.” 최승연, 「근대적 지식인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101쪽.

때 『마인』은 남성적인 추리서사와 여성적인 연애서사로 분열된 텍스트로 인식되고[9], 유불란이 결국 '연애'에 함몰됐는지, 혹은 여성의 매혹을 이겨내고 근대적 '남성'주체로 자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죄, 지리, 젠더의 키워드는 『마인』을 비롯하여 한국 탐정소설을 분석하는 장면마다 계속하여 소환됐다. 이는 근대적 탐정소설이 갖추어야할 마땅한 자격에 대한 논쟁과 연결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작업의 결론들이 계속하여 엇갈렸다는 점이다. 범죄의 키워드로 살펴보자면, 김창식은 『마인』이 "진정한 논리와 추론의 이야기"이며 이는 과거의 탐정소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대한 결함"을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10] 최애순 역시 『마인』이 "이전까지 국내 탐정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본격적인 한국 탐정소설"로 설명했다.[11] 하지만 다른 한편 이영미는 "『마인』은 태생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와 불화하는 작품"으로 설명했다. "사설탐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게다가 논리적인 추리적 사유와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불쑥 튀어나온 소설이라는 것이다."[12] 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마인』의 경성은 "1930년대 중후반의 대도시 서울이라는 시공간이, 추리소설의 근거가 되는 근대적 논리성의 태부족 현상이라는 간극을 다소 완화"[13]시켜주는 무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30년대 후반 조선의 현실 위에서 조형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근대도시를 향한 작가의 욕망과 동시대의 동경이 중첩되면서 나타난 돌발적인 것"[14]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여기서 경성은 근대에 간신히 도

9)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37쪽.
10) 김창식, 앞의 글, 185쪽.
11) 특히 최애순은 김내성이 『마인』을 통해 "범인의 정신 병리적, 변태 심리적 탐색을 주조"로 하는 '변격' 탐정소설에서 "사건의 추리해부를 주안점"으로 두는 '본격'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55~56쪽.
12) 이영미, 앞의 글, 18쪽.
13) 이영미, 위의 글, 23쪽.
14)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상허학보』 제40호, 상허학회, 2014, 83쪽.

달했거나 미달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15] 젠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탐정 유불란이 여성의 매혹을 끝내 이겨내고 "세계는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해석·이해될 수 있다는 근대적 세계관"[16]을 실현시켰다는 관점과, 김내성이 결코 "주관적인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적 움직임, 내면의 고통과 흔들림 등"[17]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애정서사'를 향해 이동했다는 관점이 함께 존재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그리고 세 가지 쟁점은 하나의 진정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김내성 탐정소설과 근대적 탐정소설 양식간의 정합성"[18]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적 기준의 근대성 개념"으로 "서구 탐정소설의 장르규칙과 이론에 부응되거나 미달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19] 이는 비교적 변화 양상의 관찰이 용이한 '장르 문학'을 통해, 우리 문학의 '근대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20] 여기서 『마인』은 식민지조선이 확보한 최대한의 성취, 혹은 결코 '근대성'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미달의 표지로 분열되었다.[21]

---

15) 김내성의 소설의 배경을 두고 "조선의 일반적 현실과는 거리를 지닌 이질적이고도 비현실적 풍경"이라 평가하는 것 역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422쪽)

16) 최승연, 앞의 글, 101쪽.

17) 이영미, 앞의 글, 37쪽.

18)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 『현대소설연구』 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201쪽.

19) 신성환, 앞의 글, 290쪽.

20) 이용희, 「근대 탐정소설의 우여곡절과 미스터리」,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13, 279쪽.

21) 최애순은 "마인의 수수께끼의 제시나 추리는 서구적인 것을 학습한 결과이지만, 살인동기를 제시한 부분은 식민지 조선의 대중의 취향을 녹여낸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근대적인 것과 전근대적인 것이 함께 녹아있었던 30년대 식민지조선"의 반영으로 설명했다. (최애순, 앞의 글, 55~78쪽) 한편 오혜진은 김내성 소설이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욕망, 원한 앞에 근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게임과 증거들이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일종의 근대성의 '분열'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어문학사, 2009, 281~282쪽) 이영미는 김내성 탐정소설이 전근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공평무사한 근대적 법질서에 대한 믿음 역시 당대 조선사회의 대중의

이 글은 범죄, 지리, 젠더의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범죄와 지리, 젠더의 쟁점들을 외따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텍스트 해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선 범죄, 지리, 젠더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근대성의 한 지점을 지향하기보다, 그것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인』은 서구적 근대 탐정소설의 특징으로 인식된 '이성중심주의', '근대적 도시공간', '합리적 남성주체'의 공식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도리어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텍스트로 재발견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인』의 근대성을 공간적 관점으로 재성찰하는 것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살필 때, 우리는 복수의 근대성을 상상하기 어렵다. 시간이 오직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때 근대는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수렴된 특수한 시간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인』은 근대에 도달했거나, 혹은 도달하지 못한 미완으로 인식되고 만다. 하지만 공간의 관점에서는 복수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공간은 여러 개의 선과 결절 등이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인』을 서구적 의미에서 탐정소설의 (미)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존하되 구별되는 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2. 범죄, 지리 : 도외(都外)의 마인

이 장에서는 범죄와 지리의 항을 연결하여 『마인』을 분석하겠다. 이 두 개의 항은 어떠한 변을 만들어내는가. 다시 말해 텍스트 해석에 있어 범죄와 지리의 문제는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우선 우리는 범죄가 분포되어 있는 지리를 생각할 수 있다. 탐정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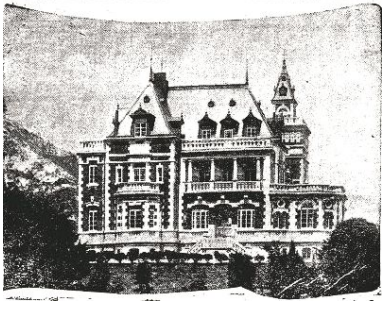
사회심리"와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앞의 글, 19쪽) 여기서 『마인』은 근대성과 전근대성이 공존하는 장으로 포착되고 있다.

고 플롯의 모든 비밀이 얽혀있는 장소는 바로 범행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마인』에서는 총 여섯 건의 살인이 발생했다. 여기서 액자 속에 등장하는 홍서방을 제외하면, 백영호와 백남수, 홍서방, 백정란, 문학수, 그리고 주은몽의 쌍둥이 자매 등은 모두 삼청동의 저택과 명수대의 별장에서 살해됐다. 다시 말해 『마인』의 살인현장은 서양식의 대저택이다. 지금까지 『마인』의 대저택은 "탐정문학의 전개에 필요한 근대적 분위기"[22], 더 정확히 말해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모습"[23]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한편으로 이 대저택들은 『마인』의 무대가 일종의 가상이자 환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임을 가리키는 표식으로 이해됐다. 전봉관에 따르면 당시 경성에는 "수십 명의 신사숙녀가 가면을 쓰고 무도회를 열만큼 큰 홀을 가진 저택"[24]이 없었다. 그래서 『마인』의 대저택은 "아르센 뤼팽이 활동하던 파리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25] 삽입된 환상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명수대 별장과 삼청동 저택의 지리를 자세히 살피면, 이 두 장

22)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 앞의 책, 213쪽.
23) 최애순, 앞의 글, 76
24)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문화」, 『판타스틱』, 페이퍼하우스, 2009년 봄, 214쪽.
25) 전봉관, 위의 글, 216쪽. 다만 당시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윤덕영 저택 '벽수산장'은 수십 명의 신사숙녀의 무도회로 사용될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건물의 존재가 『마인』에 묘사된 대저택들의 상상적 기반이 되어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래 윤덕영 저택의 사진은 「매도설을 전하는 한양아방궁」(『조선일보』 1926.05.23.)에서 전재.



소가 도시에서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두 살인사건의 현장은 모두 도시의 중심 시가지와 변별되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두 대저택은 경성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있다. 둘째, 두 대저택은 경성의 경계지대에 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자. 백영호의 저택은 삼청공원 부근에 있다. 즉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다. 또한 주은몽의 저택은 명수대에 있다. 명수대는 일본인 부호 목하영(木下營)이 현재의 흑석동 서달산 부근에 조성한 주택단지였다.[26] 그러니 『마인』의 두 대저택은 모두 평균적인 경성 시가지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 ㄱ) 실로 야수와 같이 잔인하고도 한편 신기루처럼 신비롭고 마도(魔都)의 일류미네-슌처럼 호화로운 이 죄악의 실마리는 그날 밤 저 세계적 무용가 공작부인의 생일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 공작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그렸던 머리를 들어 달빛이 곱게 깔린 한강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꿈과 같은 백요(白妖)의 세계, 멀리 경성시가의 울긋불긋한 네온이 호화로이 흐른다. [김내성, 『마인』, 조광사, 1939, 1쪽~22쪽. 이후 페이지 수만 표기]

> ㄴ) 삼청동 공원 일대에는 짙은 어둠의 장막이 흐르고 멀리 내려다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일류미네-슌이 굶주린 요부의 눈동자처럼 윙크를 한다. 천자만태의 죄악을 한아름 품고 지금 마도 대경성의 밤은 각일각으로 깊어가고 있다. (167쪽)

고지대라고 하는 환경은 다만 배경에 그치지 않고, 서사 내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ㄱ)과 ㄴ)의 인용문은 모두 멀리서 경성 시가지를 바라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ㄱ)에서 주은몽은 한강 너머로 보이는 "꿈

26) 수나모토 후미히코, 「경성부의 교외주택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제35집, 서울학연구소, 2009.05.

과 같은 백요의 세계"를 바라본다. ㄴ)에서는 서술자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경성의 시가지를 바라보고 있다. 즉 높은 곳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비로소 도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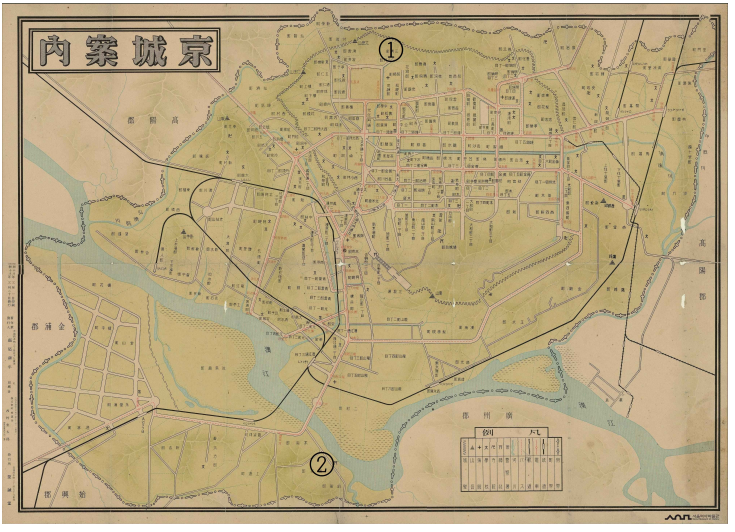


그림 2

다음으로 대저택이 가지는 두 번째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자. 두 대저택은 경성의 양극단에 세워져 있다. [그림2]는 1940년대 초반에 발행된 「경성안내」지도에서 『마인』의 주요 무대인 삼청동의 저택을 ①로, 명수대의 별장을 ②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삼청동 저택이 경성의 최북단에, 명수대 별장이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두 대저택의 첫 번째 특징과 결합한다. 즉 『마인』의 서술자는 다만 높은 곳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것뿐만 아니

27) 김희경에 따르면 이것은 "『마인』에서 경성에 대한 서술자의 인상이 목격되는 유일한 장면"이다. (김희경, 「「상상된 탐정과 정탐되는 식민도시의 민낯」,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7, 70쪽)

라, 도시의 끝자락에서 도심(都心)을 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대저택은 도시공간을 조망하는 특수한 장소로 분절된다.

이러한 공간적 분할은 심상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명수대 별장에서 주은몽이 "홀 밖 발코니"로 나가서 "명수대 일대에 고요히 흐르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강물 저편으로는 "서울 시가의 울긋불긋한 네온"이 펼쳐진다. 해가 진 삼청동 저택은 "공원 일대의 우거진 숲과 드넓은 정원의 캄캄한 장막"이 강조되지만, 그 밑으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시가지"에는 "오색의 일류미네-슌"이 반짝인다. 즉 명수대와 삼청동의 저택이 암야(暗夜)에 침잠 중인데 반하여, 경성의 도시공간은 "백요의 세계"처럼 빛나고 있다. 이렇게 대저택과 도시는 어둠과 빛의 세계로 분할되어 있다. 그러니 『마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저택들은 탐정소설의 근대적 외장(外裝)을 표시하는 도시적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로부터 상대화되는 특별한 장소이다.

> 해가 지면 삼청동공원 일대의 우거진 숲과 드넓은 정원의 캄캄한 장막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그 캄캄한 장막을 슬그머니 헤치고 복수의 악귀로 변해버린 도승 해월이가 어느 때 어디서 주은몽을 해치려고 달려들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101쪽)

> 넓은 정원을 거쳐서 전등이 어슴푸레 비치는 정문을 나섰을 때 임 경부는 문득 저편 풀에 접한 담장 밑에 거무스름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 순간 임 경부의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개의 무서움—
>
> "도승 해월이?" 하고 마음속에 외쳤을 때는 벌써 그 괴상한 그림자는 저편 솔밭 새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 때였다.(123~124쪽)

도시의 끝자락에서 자연경관이 나타난다는 점은 『마인』의 '참극'을 연출하는 공간적 요소로 작동한다. 백영호의 저택은 경성 외곽의 삼청동공

원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삼청동공원 일대의 우거진 숲"은 '도승 해월이'가 신출귀몰하게 암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었다. 이 불길하게 우거진 숲은 효과적인 은신처로서, 경찰과 탐정의 감시를 방해한다. 설혹 그들의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숲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몸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녹지는 범죄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둘 때, 『마인』의 오래된 신화 하나를 해체해야 한다. 즉 『마인』의 범죄가 근대적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마인』의 살인사건은 오히려 근대적 시가지와 구분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을 범죄의 공간으로 연출하거나, 스파이를 번화한 거리의 군중 속에 은닉시키는 수법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28] 오히려 김내성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이 슬며시 소거된 공간에서, 자신의 탐정소설을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인』은 도시 속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끝나는 곳[29]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다루고 있다.

3. 지리, 젠더 : 이동하는 남성, 정지된 여성

이 장에서는 지리와 젠더의 변을 통해 『마인』의 서사를 살펴보겠다. 도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젠더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공간은 특별히 젠더적인 분절을 만들어내며, 장소를 점유하는 방식에도 성차(性差)가

28)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 '정탐'으로 표현되는 정마리아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복잡한 구시가의 아편굴을 무작정 탐색한다. 『백구』에서 이형식은 협박편지에 따라 XX백화점 정문 앞을 찾아간다. 이때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익명의 감시자는 이형식의 불안을 촉발시킨다.

29) ①삼청동 저택의 북쪽으로는 도시의 옛 경계인 성곽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삼림(森林)이 펼쳐진다.

개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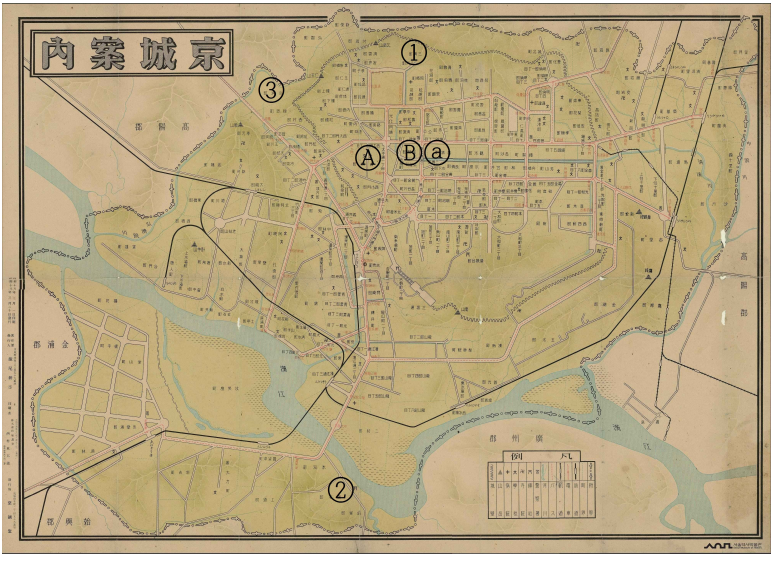


그림 3

위 그림은 경성 지도 위에 『마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 등장인물의 거처를 표시한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불란의 저택, 그리고 Ⓑ이선배(유불란의 가짜 신분)의 아파트, ⓐ오상억의 사무실, 그리고 주은몽이 거처하고 있는 두 채의 저택(①, ②), 마지막으로 주은몽이 사망하는 곳이자 주은몽의 쌍둥이 자매의 거처로 설정된 ③홍제동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지도 위로 떠오른다. 두 남성인물의 거처가 시내(市內)로 지정된 반면, 여성인물 주은몽의 장소는 모두 도시의 경계, 혹은 교외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은몽의 공간과 범죄의 공간이 교집합을 그린다는 점이다. 주은몽이 결혼을 통해 취득한 두 채의 저택은 타인을 살해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홍제동은 주은몽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이다. 이때 주은몽이 대표하는 여성 젠더

의 공간은 모두 범죄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로 나타난다.

한편 '여성의 지리'는 '범죄의 지리'와 중첩되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외곽에 자리하게 된다. 이때 여성의 장소가 모두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장소적 특징이 『마인』의 서사에 미친 영향력을 분별해야 한다. 요컨대 여성의 장소가 도시 외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어떠한 행동들이 유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지다. 주은몽은 좀처럼 이동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동은 대체로 명수대 별장과 삼청동 저택 사이를 오가는 것에 그친다. 『마인』에서 그녀가 이 두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부민관에서의 결혼식, 그리고 유불란의 저택과 오상억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이동성의 제약은, 명수대 저택과 삼청동 저택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 두 저택은 모두 외진 곳에 위치한다. 도시의 중심지와 멀리 떨어졌으며 또한 높은 곳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서사적 상황을 살펴봤을 때, 주은몽은 살해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정체를 감춘 범인의 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은신하는 것은 이해할만한 결정이다. 이러한 이동성의 제약은 탐정소설의 트릭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주은몽이 저택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거짓)알리바이로 작동했다. 이는 주은몽에게 흑막 뒤의 살인자라고 하는 신비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운신(運身)을 제약했다. 이에 따라 주은몽이 주도하는 이야기는 경성 시가지로, 혹은 경성 바깥으로 확장되는데 제한이 있었다.

남성의 지리는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의 장소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존재한다. 또한 남성의 장소는 여성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진다. 주은몽의 장소들이 살인사건의 현장으로서 계속하여 재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불란(이선배)의 거처는 그의 위장을 돕는 용도로 각 1회 등장하

며, 오상억의 사무실 역시 그를 소개하는 배경으로 잠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남성의 장소가 간소하게 다뤄지는 것은, 그들이 장소에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도 위를 종횡하며 모험을 벌인다. 유불란은 본래 "가지각색으로 변장을 하고 거리를 나다니기를 무엇보다"(150쪽) 즐기는 사람이다. 그는 명수대에서 태평통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추격전을 벌였으며, 「사진 속의 처녀」나 「제4차의 참극」에서는 태평통 자택에서 삼청동 저택, 안국동 황세민 저택을 거쳐 혜성전문학교로 이어지는 기나긴 이동을 보여준다. 그는 서사 내에서 줄곧 이동하고, 추적하고, 미행하고, 누군가를 만난다. 한편 오상억은 경성역을 경유해 도시 바깥(X천읍)으로 나간다. 또한 텍스트의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홍제동에 있는 주은몽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하고, 그녀를 명수대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또한 명수대의 저택에서 본정을 지나 M백화점, 나아가 홍제동으로 이어지는 대추격전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요컨대 여성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다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활보하고 있다. 이는 『마인』의 서사에서 남성들이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뜻한다. 주은몽이 대저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분명 탐정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교란시킨다. 그러나 주은몽의 트릭은 필연적으로 서사적 공간을 한정된 장소에 고착시킨다. 그래서 『마인』의 서사가 보다 넓은 스케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물이 필요하다. 오상억은 주은몽을 대신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증언을 만들어내고, 도주한다.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모험은 이렇게 남성의 몫이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인』의 후반부에 가면 작품의 진정한 악당이 주은몽(여성)이 아니라 오상억(남성)인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종종 『마인』이 지니고 있는 서사적 미숙함으로 이해되었다.[30]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단순히 플롯의 미숙함이나 졸속으로 처리

30)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오상억이 오히려 주은몽을 압도하여 주범의 위치로까지 격상된 점이다. 이는 오상억이 주은몽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사건 전개상 다소 무리가 있는 석

된 반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인』에 각인되어 있는 성차를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마인』의 서사를 자세히 살필 때 이러한 '공간적 이동성'의 차이가 사실은 더 심오한 차원, 즉 '사회적 이동성'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인』에서 사회적 이동의 양상은 젠더적인 경계를 따라 분열되고 있다. 즉 『마인』에서 사회적 이동성은 '이동하는 남성'과 '정지된 여성'의 구분을 따른다. 『마인』에서 주은몽은 사회적 계급이동을 지향하지 않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녀가 백영호를 살해하는 것은, 상층계급의 사회로 진입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주은몽은 '삼청동 저택'과 '명수대 별장'이 상징하고 있는 상류층의 사회적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주은몽의 살인은 이미 그녀가 두 저택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작품의 후반부에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의 범죄는 가문의 복수라고 하는 구시대의 윤리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축적과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오상억이다. 그는 백정 신분의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변호사로 성공한 뒤에는 백정란과의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었으나, 연적 문학수에 의해 좌절당했다. 또한 그는 만주개척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성공을 향한 욕망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한편 오상억이 『마인』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지는 이동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경성을 떠나 '해월'의 고향인 X천읍에 다녀왔다. 여기서 그의 활발한 공간적 이동성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야심은 분명 유비관계에 있다.

정리하자면 『마인』에서 남녀의 성차는 이동성의 차이로 나타났다. 여성인물인 주은몽은 이동성이 극단적으로 제한됐다. 이에 반하여 남성인물들은 보다 역동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른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이동성,

---

연찮은 부분이라 하겠다." (김창식, 앞의 글, 196쪽)

즉 사회적 이동성[31]의 양상을 반영한다. 주은몽이 '사회적 성공'으로부터 무관한 인물인데 반하여, 오상억은 사회적 계급상승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로 재현됐다. 여기서 우리는 시공간압축의 사회적 차이가 『마인』의 서사, 나아가 탐정소설의 서사 속에 반영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다.[32] 젠더의 지리는 『마인』의 플롯 구성에 있어 핵심적 차원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4. 젠더, 범죄 : 남성 탐정, 여성 범죄자?

『마인』에서 "주범이 여자이고, 그 여자는 요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끝에 가서 그녀가 자살한다"[33]는 정리는 지금 우리가 탐구하려는 주제를 압축한다. 우선 주범이 여자라는 점은, 그 대척점에 남성 탐정을 위치시킨다. 이는 『마인』을 비롯한 식민지시기 탐정소설이 '합리적 이성'의 대리인으로 남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그 여자가 요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살을 한다는 점은, "이성적 주체 기획의 서사"에서 "여성

31) 프랑코 모레티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청년의 '이동'은, 사회적 • 계급적 상승의 한 표현이다. 근대적 자본주의체제에서 "신분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고, 농촌이 도시에 굴복하고, 노동의 세계가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힘이 전대미문의 이동성을 강요"한다. 이때 이동은 비단 농촌에서 도시로, 또한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물리적 이동에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이동, 즉 계층의 수직상승을 이루려는 청년의 열망을 표현한다.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5, 28쪽.

32) 데이비드 하비에 따르면 시공간압축은 근대성의 핵심적 단면으로서, '시간에 의한 공간의 파괴', 즉 이동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시공간 압축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역, 한울, 2006을 참조. 한편 질리언 로즈에 따르면 근대의 '시공간압축'은 여러 사회적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젠더는 그 중심적인 차이 중 하나였다. 이는 특히 젠더 역할 때문에 여성은 집 근처에서 일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동차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시공간압축의 성차(性差)에 대한 논의는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1~372쪽을 참조.

33) 김창식, 앞의 글, 192쪽.

이 배제되고 추방"되었음으로 이해된다.[34]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마인』을 비롯한 탐정소설은 근대적 남성/탐정이 비합리적 여성/범죄자를 단죄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마인』에서 범죄와 젠더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적어도 이분법적이지 않다. 『마인』의 서사, 이 한바탕 범죄극의 성역할은 유불란과 주은몽에 의해 양분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또 하나 주요한 인물이 끼어들어 『마인』의 역학을 이항대립적인 것이 아닌 삼각형으로 만든다. 바로 오상억이다. 지금까지의 『마인』 연구는 이러한 오상억의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오상억은 유불란의 대척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그를 시야에 두고 해석을 진행해야 한다.

유불란과 오상억을 함께 다룰 때, 그들이 상당한 공통점을 가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탐정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유불란은 아마추어 탐정으로서 '해월'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오상억 역시 신문에 유불란의 정체를 폭로하는 글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에 뛰어든다. 이 대목에서 오상억은 냉정한 관찰력과 명철한 추리력을 동시에 갖춘 아마추어 탐정이다. 요컨대 오상억은 유불란과 마찬가지로 탐정의 무기인 '추리력'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인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정반대의 속성 역시 공유한다는 데 있다.

> 경관들과 이선배 사이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대 추격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경관들의 오토바이와 이선배의 자동차와의 거리는 약 삼백 미터 — 그러나 처음에는 오토바이의 속력이 무척 빨라서 이대로 가면 적어도 서울역 근방에서 저 수상한 화가 이선배를 완전히 체포하리라 (중략) 그러나 그들의 사이가 백미터까지 좁아졌을때 운전수는 과분의 보수를 받은 듯 이선배의 자동차는 마치 총소리에 놀란 참새처럼 후닥닥하고 한번 그 커다란 엉덩이를 들썩허더니 저릿저릿한 속력을 내어 점점 깊어가는 밤 공기를 칼

34) 김은하, 앞의 글, 238쪽.

로 베듯이 날아간다.(48쪽)

한강 인도교를 넘어선 오상억의 자동차는 실로 저릿저릿한 속력으로 시내를 향하여 바람처럼 달리고 있었다. (중략) 네거리에 선 고스톱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달리는 오상억의 자동차. 그럴 때 마다 교통순사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따라오다가 그만 사라지곤 한다. (530~531쪽)

유불란과 오상억은 각각 『마인』의 초반과 후반부에 인상적인 도주 장면을 연출한다. 여기서 두 남성은 모두 자동차를 타고 경찰과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을 벌였다. 이러한 장면은 『마인』에 근대도시의 스펙타클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단순히 탐정소설의 서사에 박진감을 더해주는 장치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마인』의 독자들에게 투사되었던 집단적 욕망이 있다.[35] 당시 자동차는 "첨단 문명을 오락거리로 즐길 만큼 부와 권력, 지위에서 특별하다는 의미를 발산하는 상징물"인 동시에 "사회적 권력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질시와 선망의 복잡한 시선"[36]의 대상이었다. 부유층이 향유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간을 마음대로 압축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유롭게 허락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유불란과 오상억은 자신의 것이 아닌 자동차를 몰아 도시를 무법으로 질주했다. 이것은 근대적 이동성을 전유해서, 근대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추격전은 비단 경찰 공권력에 대한 반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도시성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도시는 근대적인 도로계획과 교통수단을 통해 "자기들의 속도를 모든 사람의

35) "관례화되고 형식화된 통속적 장치는 (중략) 주관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기능을 수행한다."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61쪽)

36) 이옥분, 「근대기 자동차의 사회적 인식」, 『디자인학연구』 제27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14, 177쪽.

시간에 강요하"[37]는 존재다. 이때 도시를 가로지르는 질주는 "반체제적,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반영웅의 모험서사"[38]의 표현이다.

즉 유불란과 오상억은 모두 저항적 남성영웅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합리성, 추리력, 이동성 등 '근대적 힘'들은 근대사회의 유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파괴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러니 『마인』에서 남성 젠더는 근대 사회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 강력한 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폈을 때 '남성/탐정이 여성/요부를 단죄한다'는 설명은 이미 들어맞지 않는다. 남성 젠더는 탐정의 역할 이외에도 반영웅이자 범죄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합리적 질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인물인 동시에, 그 세계를 교란하는 자다.

여성인물 역시 '요부', 혹은 '범죄자'의 역할로 환원되지 않는다.[39] 물론 표층적인 차원에서 『마인』의 주은몽은 『몰타의 매』의 윈덜리나 『음울한 짐승』의 시즈코, 『염마』의 서광옥과 같은 팜 파탈(femme fatal)의 계보를 따른다. 이 세 여성은 모두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화려하게 전시하며, 욕망의 충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윈덜리와 시즈코의 경우 자신의 범죄 트릭을 완성하기 위해 탐정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은몽 역시 섹슈얼리티를 화려하게 과시한다는 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남성(특히 탐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팜 파탈의 전형성을 띤다.[40]

그러나 주은몽에게는 윈덜리와 시즈코, 서광옥의 가장 큰 특징이 부재

37) 데이비드 하비,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김병화 역, 생각의 나무, 2005, 375쪽.
38) 송수연, 「식민지시기 소년탐정소설과 모험의 상관관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8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96쪽.
39) 유인혁에 따르면 주은몽은 섹슈얼리티를 무기삼아 남성 주체를 유혹하는 역할을 단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문화적 관습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적인 주체이다. (유인혁, 「식민지시기 탐정서사에 나타난 '악녀'와 도시공간」, 『대중서사연구』 제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347~385쪽)
40) 신성환은 주은몽을 "가부장적 사고가 공고한 조선 사회에서 쉽게 용납할 수" 없었던 신여성이 부정적으로 타자화된 결과로 이해한다. (신성환, 「근대 도시, 미로에 대한 오랜 꿈」, 『한국언어문화』 제4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51쪽)

한다. 그녀는 욕망이 결핍된 인물이다. 『몰타의 매』에서 윈덜리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샘 스페이드를 유혹했다. 『음울한 짐승』에서 시즈코는 남편을 살해 후 재산을 독차지 했으며 금기시 되는 섹슈얼리티를 해방시켰다. 『염마』의 서광옥 역시 성적 방종과 금전적 유희를 지속하기 위해 살인극을 벌였다. 이때 '팜 파탈'들의 범죄는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은몽은 자신의 성욕, 혹은 물욕을 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마인』의 서사가 종결될 때, 독자들은 그녀가 뜻밖에도 순결한 처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주은몽은 신분상승이나 일확천금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가 백영호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암시나, 비정상적인 성욕을 경험했다는 암시는 오직 그녀의 진면목을 감추기 위한 장치로 사용됐다. 주은몽의 범죄는 선대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은몽은 전형적인 팜 파탈의 형상에서 이탈하여 "전근대적인 살인동기인 복수코드"[41]의 대리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은몽은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 그녀는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괴물 같은 타자[42]에서, 동정의 여지가 있는 '순결한 처녀'로 변화한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전환은 일종의 결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주은몽의 캐릭터 내에 중첩되어 있는 모순은 플롯 상의 미숙함이거나, 혹은 대중적 취향과 타협한 결과라는 것이다.[43] 이것은 나아가 조선

41) 최애순, 앞의 글, 77쪽.

42) 이화진에 따르면 팜 파탈은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 매력과 신비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남성들을 성적으로 종속시킬 뿐만 아니라 치명적 불행을 야기하는 여성"(이화진, 「팜므 파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쪽)이다.

43) 최애순은 이를 두고 "탐정소설의 독자는 '학생'과 같은 근대적 독자층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꽃가튼 미인', '절대가인'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애정을 쏟는 고전소설·신소설의 독자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분석했다. 나아가 "식민지시기 근대 자본의 논리, 욕망, 범죄를 담아내는 탐정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최애순, 「최서해 번안 탐정소설 『사랑의 원수』와 김내성 『마인』의 관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5집, 한

의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으로 비춰지기도 했다.[44] 즉 주은몽의 모순적 성격은 대중들의 기호를 고려한 작가의 처방[45]이거나 "식민지 조선의 대중의 취향"[46]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당대의 건전한 보수적 상식"을 따라 "그 시대의 상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미덕과 한계"를 드러낸 것[47]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김내성의 진의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김내성이 '대중성'을 고려하여 '서구식 탐정소설'과 '고전적 여성수난사'의 '절충'을 시도했는지 여부는 오로지 추측만이 가능하다. 실제 텍스트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김내성이 주은몽의 세계를 미화(美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ㄱ) "아아, 어여쁜 악마! 정란이 그것이 만일 로맨스라면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로맨스야. 공포에 찬 아름다운 로맨스, 애기중 해월은 그때 벌써 하나의 소악마였었어. 뱀 앞에 개구리 모양으로 나는 그 악마에게 나의 철없는 정열을 전부 바쳐 버렸던 말이야……. 어여쁜 소악마!"(104쪽)

> ㄴ) 독자제군이여! 이제부터 백씨 가문과 엄씨 가문 사이에 벌어진 아름다운 로맨스인 동시에 무서운 죄악의 실마리를 이야기하고자,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전으로 기어올라가야만 한다. 그것은, 물론 홍 서방의 입으로부터 아무런 질서도 없이 잡연(雜然)히 흘러나온 이야기를 오상억 변호사가 자기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혹은 부언하고 혹은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서 있는 로맨스를 구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리무

국현대소설학회, 2010, 419쪽)

44) 그러나 사적 원한에 대한 동정이나 공감은 서구 탐정소설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주홍빛 연구』의 범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를 살인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내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행하는 집행관이라고 생각합니다."(아서 코난 도일, 박상은 옮김,『주홍빛 연구』, 문예춘추사, 2012, 174쪽)

45) 오혜진,「1930년대 추리소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일고찰」,『우리문학연구』제20호, 우리문학회, 2006, 337쪽.

46) 최애순,「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 앞의 책, 78쪽.

47) 이영미, 앞의 글, 42쪽.

> 중 잠겨 있던 사건의 중요한 인물인 살인귀 해월의 기구한 과거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듯 우리들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349쪽)

주은몽은 유불란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월'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ㄱ)에서 '애기중 해월'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어여쁜 소악마'로 묘사된다. ㄴ)에서 해월의 과거는 '기구'하면서도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이 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살인극'의 동기가 되는 주은몽의 과거는 공포를 부르며 한편으로는 매혹적인 것, 즉 "무서운 로맨스"로 표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은몽에 의해 발생한 모든 사건들이 무섭고도 매혹적인 것으로 그려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극중에서 해월(주은몽)은 '위대한 힘'과 '신비로운 재주'로 현대 과학을 농락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탐정소설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김내성은 『마인』에서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척 무섭고 무척 흥미있는 사건은 거의 전부가 처음에는 신비의 가면"(57쪽)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선 직관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미스터리를 이성과 추론의 힘으로 해결하는 탐정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탐정소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세계에 대한 심오한 매료를 드러내는 문장이다.[48] 탐정소설에서 범죄는 단순히 논리적 해결의 대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그것은 왕왕 비합리적인 충동과 욕망의 대상이다. 김내성은 『마인』의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범죄의 수사를 "기상천외의 재주를 가진 범인을 상대로 마음껏 한번 싸워 보고 싶은 충동"의 해소로서,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욕 이상의 흥분"(38~39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말했다.[49] 여기에서 침착하게

48) 김내성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괴기로움에 흥미"를 느끼는 '괴기미', "무서움을 동경 갈망하고 그것을 도리어 향락"하는 '공포미' 등을 탐정소설의 중요한 정서로 꼽았다. (김내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3, 127쪽) 여기서 김내성은 수수께끼의 해결만큼이나, 수수께끼의 신비 자체가 탐정소설의 중요한 쾌락임을 지적하고 있다.

49)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 내게 문제를, 일을 주게나. 머리를 쥐어짜야 할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암호라도 가져다준다면 평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르주아적 주체가 물러나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과 흥분을 추구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즉 과시적이며 호화로운 '신비의 가면'과 그것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쓰려는 탐정의 활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탐정소설의 범죄와 젠더의 관계는 결코 일목요연하게, 혹은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성적 남성/탐정이 비합리적 여성/범죄자를 단죄하는 이야기로 결코 요약될 수 없다. 남성 젠더는 결코 합리적 이성의 대리자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반영웅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탐정소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충동과 욕망을 체현한다. 그러니 남성/탐정이 여성/범죄자에게 매혹되는 것은, 다만 탐정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매혹은 탐정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쾌락을 반영하고 있다.

5. 범죄, 지리, 젠더 : 탈주의 서사

지금까지 『마인』을 범죄와 지리, 지리와 젠더, 젠더와 범죄의 축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요약해보자면, 2장에서는 『마인』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근대도시로부터 분절된 공간임을 밝혀냈다. 3장에서는 범죄의 장소가 여성적으로 젠더화되며, 인물들의 이동이 각각 '움직이는 남성'과 '정지된 여성'의 패턴을 따른다는 점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마인』의 남성과 여성이 각각 '합리적 탐정'과 '비합리적 범인'으로 양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장에서는 이러한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 입체적인 상을 구성하고자 한다.

(중략)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특수한 직업을 선택한 거야." (아서 코난 도일, 박상은 옮김, 『네 개의 서명』, 문예춘추사, 2012,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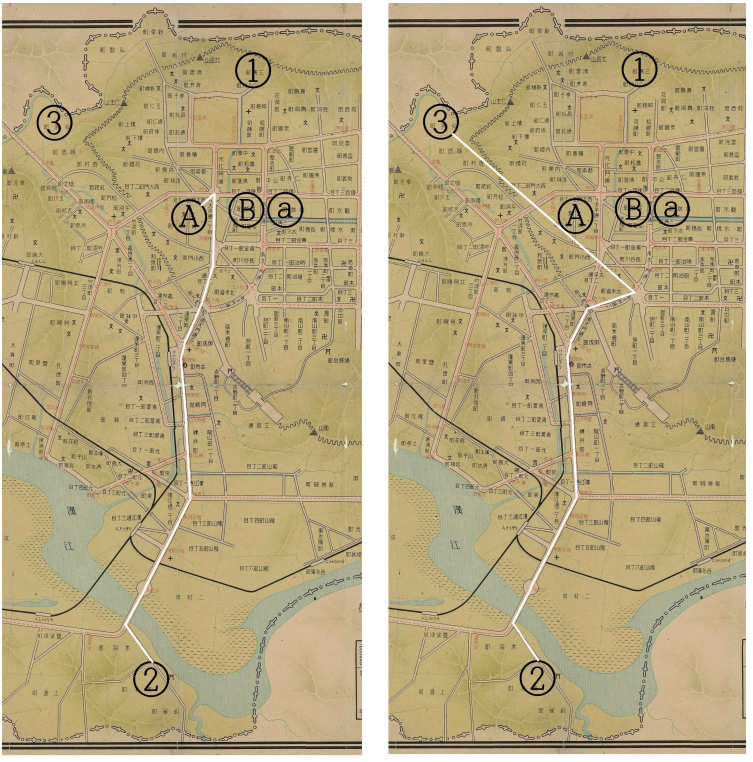


그림 4

위 그림은 3장에서 다루었던 유불란과 오상억의 탈주를 지도 위에 정리한 것이다. 간단히 부연하자면, 유불란의 탈주(②-Ⓐ)는 작품의 초반에, 오상억의 탈주(②-③)는 작품의 마지막에 벌어졌다. 여기서 두 사람의 탈주는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두 사람의 탈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다. 유불란과 오상억은 모두 명수대 별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여 경성 시내로 진입했던 것이다.

두 탈주로는 시내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유불란과 오상억은 모두 도심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유불란은 정지했지만, 오상억은 탈주를 멈추지 않았다. 유불란의 경우 태평통 자신의 집까지 도주 후, 담벼

락 너머로 급히 옷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막 산책을 나오는 것처럼 연기하여 경찰을 속였다. 오상억의 경우, 유불란이 도주를 멈추었던 지점에서 도약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 끝에 막다른 곳에 몰렸으나, 고층 건물의 옥상에서 애드벌룬을 타고 공중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하늘을 통해 도시의 서북쪽 끝(③)을 향해 움직였다. 즉 오상억은 유불란이 멈췄던 곳에서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이 두 개의 탈주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제들을 함축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획득한 단서들을 총동원하여 이를 해석해야 한다. '범죄-지리'에 따르면, 유불란의 탈주(②-Ⓐ)는 도외(都外)에서 도심(都心)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오상억의 탈주(②-③)는 도외에서 도심을 거쳐 다시 도외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인물이 범죄의 공간으로부터 이탈하거나, 혹은 복귀하려 이동하는 궤적을 보여준다. '지리-젠더'에서 알게 된 사실을 더하면 이는 남성인물들이 여성과 여성적 공간에 가까워지기 위해, 혹은 멀어지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즉 유불란이 여성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원심적인 이동을 보여준다면, 오상억은 여성에게 되돌아가는 구심적인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범죄'의 항에 따르면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유불란이 ②를 떠나 Ⓐ로 진입한 것은 합리적 주체가 유혹의 공간으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오상억이 M백화점에서 다시 ③으로 나아갔던 것은 다시 매혹의 세계로 재진입한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유불란은 탐정으로서 사건을 해결했고, 오상억은 악당으로서 최후를 맞았다. 여기까지 살필 때, 『마인』은 범죄(여성)의 세계로부터 거리를 둔 탐정이 난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혹은 여성적 유혹을 견디고 근대적 주체로 자립하는 남성의 이야기처럼 읽힌다. 하지만 김내성은 여성의 공간을 탈출한 유불란을 승리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오상억을 냉정하게 단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퀀스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ㄱ) "이번 사건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나에게

는 탐정의 소질이 없다는 것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범죄사건에 손을 대이지 않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임경부께 성명합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피가 순환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은 때문입니다. 탐정의 혈관에는 강철이 돌아야 합니다."(578쪽)

ㄴ) 이 전대미문의 대곡예사의 공중비행! 이 소문이 어느덧 서울 장안의 골목골목까지 전파되었다. 담 위에 올라간 사람,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중략) 아아, 보라! 총소리와 함께 터져나간 애드벌룬! 오상억은 자기 손으로 풍선을 터쳐 버리지 않는가! 군중의 머리 위에 쏜살같이 떨어져 내려오는 오상억의 몸뚱이! 그 뒤를 따르는 탐조등의 불빛! 천지를 진동시키는 군중의 아우성! 돌매같이 낙하하는 오상억의 몸뚱이를 중심으로 하고 수라장처럼 흩어지는 사람의 물결!(561쪽)

ㄱ)에서 유불란은 돌연 '탐정 폐업'을 선언한다. 그는 "나에게 탐정의 소질이 없는 것", 즉 "탐정의 혈관에는 피가 순환하여서는 안" 되고 "탐정의 혈관에는 강철이 돌아야"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불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에게는 탐정의 소질이 없다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유불란은 '탐정의 소질'이 부족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강철'로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신체를 담담히 인식하는 듯하다.

한편 김내성은 ㄴ)에서 오상억의 '몰락'을 장대한 스펙타클로 연출한다.[50] 오상억은 보통의 시민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고,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날아오른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영웅적 탈주

50) 신성환은 이 장면에서 "오상억의 악마적 본성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이에 따라 오상억이 "경성 시민들을 조롱하고 냉소"(신성환, 「근대도시, 미로에 대한 오랜 꿈」, 267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냉담을 연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호의 광경처럼 비치고 있다.

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공중의 대탈주 끝에, 오상억은 애드벌룬 위에서 수첩을 찢어 유언을 지상으로 뿌렸다. 쪽지에는 "은몽아, 잘있거라"(541쪽)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51] 오상억에게 있어 주은몽을 향한 이동은 추락이며, 죽음이다. 만약 오상억이 스스로의 안위를 따졌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주해야 옳다. 하지만 "은몽씨의 목숨을 아끼기보다도 내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한다던 오상억이, 주은몽의 매력에 빠져 "이제 방금 은몽씨의 목숨이 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210쪽)았을 때, 그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오상억의 성애는 자기보존욕을 초월하는 죽음충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오상억이 "평범한 것에 대한 반항성을 만족시키는 충동"이라는 "탐정소설의 본질"[52]을 실천하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오상억이 자기 목숨을 도외시하고 여성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탐정소설의 쾌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오상억은 유불란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고, 차마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이동하는 인물이다. 예컨대 오상억은 유불란의 탈주로를 연장한다. 유불란의 탈주가 도심에서 멈췄을 때, 임경부는 "이선배란 인물이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이지 않은 이상 이 수수께끼를 풀 사람"은 유불란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상억은 애드벌룬이라는 근대기술의 날개를 통해 창공으로 도약했다. 이 장면에서 오상억은 복선을 이어받으며, 그를 넘어서는 이동성을 선보인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마인』의 서사가 범죄, 지리, 젠더의 전제를 부정하며, 정반대의 결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마인』은 추리기계인 탐정이 미스터리한 범죄를 해결하는 서사로 압축되지 않는다. 『마인』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충동이라는 탐정소설의 쾌락을 추

51) 물론 오상억은 백씨 가문의 재산인 '백만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은몽의 살인극에 참가했다. 이는 오상억의 '웅대한 동기'(385쪽)로 묘사된다. 하지만 김내성에 의해 애써 "몇 분지 일"로 축소되었을 지언정, 그가 주은몽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으며, 또한 운명에 힘입어 주은몽과 최후를 함께 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52) 김내성, 「탐정소설의 본질적 요건」, 『월간탐정』, 1936; 조성면,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150쪽에서 재인용.

구한다. 또한 『마인』은 도외의 공간을 분절시킴으로써, 근대문명의 세계와 상대적인 공간을 내세운다. 그리고 『마인』은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육화시킨 존재로 여성을 성격화하며, 그것을 미적으로 연출한다. 『마인』의 탐정은 이 여성을 단죄하면서도, 깊숙이 매료된다.

정리하자면 김내성의 『마인』은 근대적 합리성의 주체인 남성/탐정의 승리를 보여주기보다는, 근대성에 의해 부정되거나 혹은 주변부로 밀려난 비합리적인 충동과 쾌락을 강조하고 있다. 『마인』이 보여주는 것은 근대문명의 공간인 도시로부터, 그리고 근대적 합리성으로부터 탈주하는 역동성이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는 수수께끼에 중독된 나머지, 범죄사건이 없으면 아편을 대증요법 삼아 피웠다. 에도가와 란포의 『음울한 짐승』에서 사무가와 코이치로는 시즈코와의 변태적인 성관계에 탐닉하여, 그녀의 트릭을 간파한 다음에도 정의실현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주은몽의 죽음 후 탐정폐업을 선언하는 유불란은, 이 두 선배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한 다른 강도로 탐정소설의 이면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한 주체가, 다른 한편 가장 강렬하게 비합리성에 매혹된다는 모순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내성, 『마인』, 조광사, 1939.

김내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 127쪽.

아서 코난 도일, 박상은 역, 『네 개의 서명』, 문예춘추사, 2012.

아서 코난 도일, 박상은 역, 『주홍빛 연구』, 문예춘추사, 2012.

2. 단행본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어문학사, 2009, 281~282쪽.

조성면,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150쪽.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역, 한울, 2006, 1~432쪽.
데이비드 하비,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김병화 역, 생각의 나무, 2005, 375쪽.
에드워드 소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이무용 역, 시각과 언어, 1997, 1~352쪽.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61쪽.
이뢰크 되링·트리스탄 틸만 편, 『공간적 전회』, 이기숙 역, 심산, 2015, 1~630쪽.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2011, 1~372쪽.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5, 1~447쪽.
Julian Symons, Bloody Murder, Mysterious Press, 1993, pp.2~3.

3. 논문

김은하, 「모더니티를 탐사하는 근대적 이성의 로망스」, 『국어문학』 제47호, 국어문학회, 2009, 235~262쪽.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대중서사연구』 제3권 1호, 대중서사학회, 1997, 161~200쪽.
김희경, 「상상된 탐정과 정탐되는 식민도시의 민낯」, 『대중서사연구』 제23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7, 45~91쪽.
류수연, 「신문, 도시 그리고 탐정소설」, 『상허학보』 제40호, 상허학회, 2014, 81~112쪽.
송수연, 「식민지시기 소년탐정소설과 모험의 상관관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8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95~117쪽.
수나모토 후미히코, 「경성부의 교외주택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제35집, 서울학연구소, 2009, 147~246쪽.
신성환, 「근대 도시, 미로에 대한 오랜 꿈」, 『한국언어문화』 제4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37~273쪽.
신성환, 「김내성 번안 추리소설에 나타난 공간의식 연구」, 『비평문학』 제44집, 한국비평문학회, 2012, 259~298쪽.
오혜진, 「1930년대 추리소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

제20호, 우리문학회, 2006, 319~343쪽.
유인혁, 「식민지시기 탐정서사에 나타난 '악녀'와 도시공간」, 『대중서사연구』 제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347~385쪽.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7~50쪽.
이옥분, 「근대기 자동차의 사회적 인식」, 『디자인학연구』 제27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14, 171~181쪽.
이용희, 「근대 탐정소설의 우여곡절과 미스터리」,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13, 277~297쪽.
전봉관, 「≪마인≫ 속 경성과 경성문화」, 『판타스틱』 2009년 봄, 페이퍼하우스, 210~229쪽.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 『현대소설연구』 제3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99~218쪽.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405~434쪽.
조성면, 「탐정소설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제13권,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338~363쪽.
최승연, 「근대적 지식인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87~128쪽.
최애순, 「이론과 창작의 조응, 탐정소설가 김내성의 갈등」, 『대중서사연구』 제21호, 대중서사학회, 2009, 51~86쪽.
최애순, 「최서해 번안 탐정소설 『사랑의 원수』와 김내성 『마인』의 관계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4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387~426쪽.
한민주, 「근대 과학수사와 탐정소설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제4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37~268쪽.
Glenn W. Most, "Urban Blues: Detective Fiction and the Metropolitan Sublime", *The Yale Review* Volume 94, 2006, pp.56~72.

Abstract

Crime, Geography, Gender: Three Keywords of Kim Nae Sung's *The Evil* and Modern Detective Novel

Yu, In-hyeok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Kim Nae-Sung's *The evil* [魔人] through the keyword of 'crime', 'geography' and 'gender'. Until now, these three keywords have been accepted as a central concept in analyzing detective novels of the colonial period. Through 'crime', previous studies noticed that Yu Bul Ran, the detective, solved the crime with his rational mind as well as the 'great detectives' of the West. Through 'geography', the issue of determining whether the Kyung-Sung[京城] was a metropolis suitable for the space of modern detective novels was raised. Finally, 'Gender' focuses on Yoo Bul Ran's relationship with women. In other words, previous studies focus on whether the detective concentrates his investigating or neglect his duty with love affair. These three keyword ultimately sought to determine whether the Korean detective novels match the format of Western detective novel.

This study is referring three keyword not as disconnected issues but as geometric triangle. By doing so, this article shows that *The Evil* is not a convergence of 'the Western', but there are aspects that violate or surpass the model. Thus, it ultimately raised a spatial view that modernity is not singular, and that there can be multiple models at the same time.

The narratives of the text have the aspect of negating the premises of crime, geography, and gender. *The Evil* is not abstracted into a narrative that solves a mysterious crime through rational reasoning. On the contrary, *The Evil* promotes the pleasure of irrational impulse. In addition, the text divides the space of the marginal from 'centre city', so it reveals relative space from modern civilization. The text also characterize woman as the embodiment of irrationality and pre-modernity. To summarize, the author did not express trust in modern rationality through *The Evil*. He expresses the desire to deny and transcend modernity.

Key words : Kim Nae-Sung, *The Evil*, detective novel, crime, geography, gender, spatial turn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